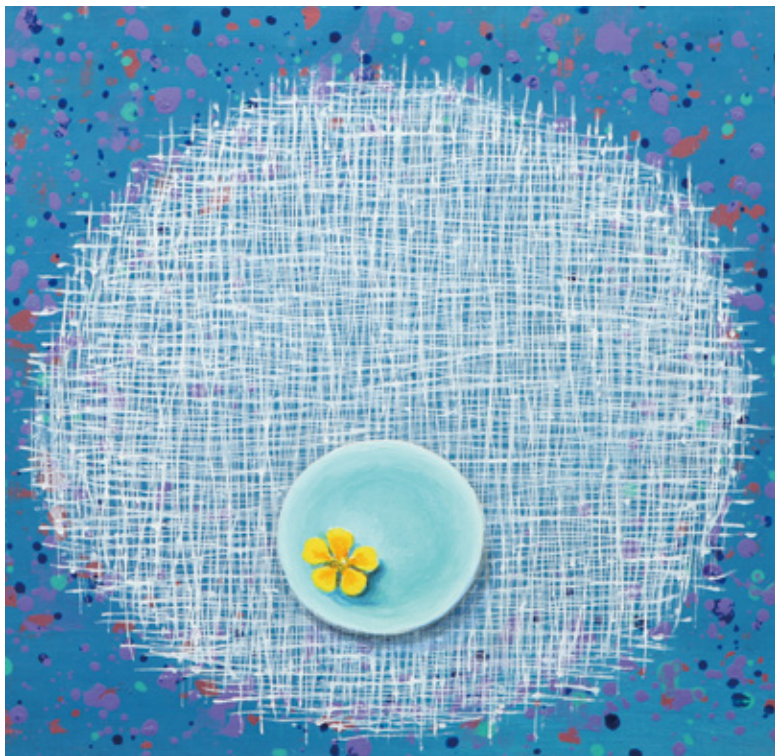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2019. 6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9 / 6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보왕삼매론(1)
산다는 것 그림다는 것	12	소녀상
길상사 시간여행	15	성북동 길상사 터의 역사 ③
아름다운 마무리	22	6월 결연 대상자 - 한미영(가명)
인권 아단법석	24	장애인권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27	사람도 침팬지도 모두 자연이네
따뜻한 이야기	30	부부사이의 위기극복
향기나는 우체통	32	반하다
	36	캐나다에서 살아보기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39	
길상사 소식	49	



• 이가은 「不二」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시다.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9년 6월 1일 발행 / 통권 292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보왕삼매론(1)

글·법 정(法頂)

오늘은 보왕삼매론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끝없는 복습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법문을 듣다 보면 대개 비슷비슷한 말씀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예습은 없어요. 하루하루 정진하고 익히는 복습이지요. 영적인 체험은 복습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종교적인 체험은 하루하루 비슷비슷하게 되풀이되는 복습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복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까지 익혔던 정진은 어제로서 끝나고 오늘은 오늘대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보왕삼매론 많이 들으셨지요? 이제 다시 복습삼아서 읽으십시오. 지금까지 들었던 것 모두 잊으세

요. 그건 과거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음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 합니다. 사바세계가 무슨 뜻이지요? 산스크리트에서 온 말인데 우리말로 하자면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하는 세상이란 뜻입니다. 참을 인(忍)자, 흠토(土)자, 인토(忍土). 즉,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 혹은 '참는 땅'이라 하는 겁니다. 또는 감인토, 견딜 감(堪), 참을 인(忍)자 즉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참고 견디어 나가는 세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삶의 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된다면 좋

을 것 같지만 세상 사는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보왕삼매론은 이런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옛 선사들이 교훈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활의 지혜지요. 또 순경계가 아니고 역경계, 삶의 거스름 속에서 터득하는 생활의 지혜, 자기 관리에 대한 일종의 처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병고(病苦)로써 양약(良藥)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 몸이라는 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네 가지로 이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존재는 반야심경에 나오듯 오온, 즉 색수상행식,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가 합쳐서 만들어진 유기적 존재입니다.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어떤 인연이 닿아 이런 형상을 갖추고 나왔습니다. 또 인연이 다 하면 이게 흩어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무상한 것입니다. 늘 변하는 겁니다.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생로병사라 하잖아요. 저를 오랜만에 본 신도나 스님들은 '아이구 스님두 이제 많이 늙으셨네요' 합니다. 중이라구 안 늙는 재간이 있습니까? 부처님도 생로병사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주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영혼에는 생로병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거죽은 생로병사가 있다지만 알맹이는 생도 없고 노도 없으며, 병도 없고 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상적인 우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몸에 어떻게 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유기체인데, 탈이 나는 거지요. 병을 앓을 때 신음만 하지 말고 그 병의 의미를 터득하라는 말입니다. 평소에 건강했을 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앓

을 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고마움도 느껴야 하고 내가 하루 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간관계는 어떠했는가, 나는 직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병 자체가 죽을 병이 아니라면 그 병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뜨라는 겁니다. 좋은 약으로 삼으라는 말이지요. 사람의 몸은 허망한 유기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지만 이 다음 순간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본래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 늘 건강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 건강했을 때, 내게 건강이 주어졌을 때 잘 살라는 뜻입니다. 허송세월 말라는 겁니다. 인생을 무가치한 곳에 쏟아 버리지 말

라는 거예요. 육신의 병은 약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정신적인 병은 약으로써 다스리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허약합니까? 옛날보다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 속에 살고 있는데 체력과 의지는 자꾸 떨어집니다. 어떤 게 몸에 좋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모두 그 쪽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약합니다. 옛날 농사짓고 살던, 흙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던 시절에는 흙으로부터 많은 기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흙의 교훈을 몸소 익혔기 때문에 그렇게 허약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꾸 흙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대지로부터 멀어지니까 허약해지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허약해졌어요. 몸이 조금만 어둡다 하면 하루 아침에 좌절하잖습니까?

중생의 병은 업에서 나옵니다. 업이란 뭘니까? 하루하루 익히는 생활 양식입니다. 생각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 이것이 건강하게도 만들고 병도 만듭니다. 중생의 병은 업에서 나옵니다. 보살의 병은 어디에 있는가요? 자비심에 있습니다. 유마경에 중생이 앓기 때문에 나도 앓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이 앓을 때 같이 앓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자식이 밤새 잠 못자고 앓을 때 같이 앓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입니다. 생명의 뿌리니까. 그런데 자식이 앓고 있는데도 한쪽에서 쿵쿵 자고 모른 채 한다면 그건 어머니가 아니지요. 가짜예요. 이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자식이란 것은 모태에서 나온 가지 아닙니까? 뿌리에서 파생된 가지입니다. 가지가 앓을 때 뿌리가 앓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중생의 병은 업에서 나오지만 보살(어머니들이 보살이지요)의 병은 자비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경우이고 세상이 이렇게

막 때가다 보니까 자식이 앓는지 마는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헬스클럽 다니고 잘 먹고 지내지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이런 희한한 사람도 더러 있잖습니까? 모든 게 선지식입니다. 우리 앞에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선지식입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언짢으면 언짢은대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면 본받아야겠지만 좋은 일이 아니라면 본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병고(病苦)로써 양약(良藥)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순경계가 아닌 역경계에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처세훈입니다.

**둘째,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

**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제 잘난 체 하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세상을 고해라 하겠습니까? 고통의 바다라고, 사바세계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세상, 고해,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만 바랄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집안을 놓고 보더라도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곤란 없게 되면 사람들이 넘치게 됩니다. 잘난 체하고 남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게 됩니다. 마음이 사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근심과 걱정을 밖에서 오는 귀찮은 것으로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과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속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집

안에 어떤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다면 회피해선 안됩니다. 그걸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재난이 닥치는가, 이것을 안으로 살피고 딛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저마다 자기 짐을 지고 나옵니다. 그 짐마다 무게가 다릅니다. 누구든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 남들이 넘겨볼 수 없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나쁘게만 생각지 마세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창의력을, 의지력을 계발하라는 우주의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은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됩니다.

이 사바세계라는 것, 참고 견뎌야 할 세계, 여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만약 이곳이 극락이나 지옥이라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극락? 아무 고통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할 세계입니다. 그러나 재미없어요. 또 지옥? 너무 고통스러워서 감내할 수가 없지요. 사바 세계는 그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딜 만한 세상입니다.

**셋째, 공부하는 데에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공부라는 것은 꼭 스님이나 신도들이 정진하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에요. 장애 없는 세상이 어딴습니까? 다 장애가 있기 마련입니다. 좋아서 사랑한다는 데도 삼각관계니 뭐니 해서 장애가 있겠습니까? 장애 없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님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한 평생 세상을 살다보면 무수한 장애물 경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오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헤치고 왔습니까? 그러니 인생이란 일종의 장애물 경주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탈이란 뭘니까? 그런 장애물을 넘어서 안팎으로 자유로워진 상태, 안팎으로 활기분해진 상태, 이걸 해탈이라고 하지요. 장애라는 것은 해탈로 이르는 디딤돌입니다. 발판입니다. 그런 장애가 없으면 해탈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우주에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생물이 됐든 다 우주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찮다고 해서 농약으로, 강한 살충제로 죽여 보세요. 그 생물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이로운 것까지 모두 사라집니다. 오늘 이 생태계의 이변과 환경 문제, 또 지구 온난화 문제 이게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너무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과 조화를 모르고 어떤 부분적인 것에 간혀서 그것만 지나치게 소비하고 낭비하고 혹사시키다 보니까 지구 자체가 인간들을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저기에서 떨어내느라, 재채기 하느라고 지진도 일으켰다가 또 여기저기 불도 일으킵니다.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마치 물처럼 하도 귀찮게 하나까 떨어내느라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지요. 지구가 땀니까. 우리가 기대고 있는 생명의 바탕입니다. 우리만 살고 지나갈 생명의 장소가 아닙니다. 영원히 존속돼야 할 생명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우리가 너무도 지구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써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이변이 오는 것입니다.

장애 없길 바라지 마십시오. 장애라는 것은 다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해탈의 길로 이어진 길목이기 때문에

장애를 거부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번뇌를 보리로 전환하고 생사를 열반으로 전환하고 고뇌의 기쁨으로 전환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고 합니다. 장애 없이는 해탈이 안 됩니다.

**넷째, 수행하는 데에 마(魔)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 데에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모든 마군으로써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마란 뭘니까? 나쁜 것입니다. 잠잠하게 정진하고 싶는데 늘 졸음이 온다거나 또 공연히 망상이 일어난다거나 모두 마입니다. 호사다마(好事多魔), 좋은 일에는 마가 깐다고 하잖아요. 또 도고마성(道高魔盛), 도가 높을수록 마가 성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의 그릇을 키우는, 우리의 기량을 키우는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려면 반드시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걸 회피해선 안 됩니다. 회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딛고 일어섬으로써 새로운 기량, 새로운 의지력, 내가 지금까지 갖추지 못한 새로운 그릇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든 그대요, 무슨 사업하려고 하는데 부도직전에 어려운 일이 닥친다거나 또 혼사를 받았는데 엉뚱한 장애가 생긴다거나 하는 것은 이 사바세계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겉으로만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안으로 곰곰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안에서 새기며 의미 부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념유희가 아닙니다. 소극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고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어떻

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할 때 이런 옛 성인들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하는 데에 마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 데에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한다. 저마다 서원이 있잖습니까? 마음속으로 서원을 세우십시오. 꼭 수도 세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데도,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데도 나름대로 서원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키워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서원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장애가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다면 언제 내가 그런 서원을 세웠다가 싶을 정도로 스스로 후퇴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군으로써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이렇게 옛 성인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 1997년 11월 4일 길상사 창건 기원 법문

## 소녀상

글 • 최종태

언제부터인지 나는 소녀들을 바라보는 습성을 지니게 되었다. 길을 걷거나 차를 타거나 어디에 앉으나 나의 눈은 소녀들을 쫓는다. 그들의 몸매와 차림새와 표정을 읽는데 몇 년 몇 날을 바라보아도 마냥 좋기만 하다. 티 없이 맑고 꿈으로 가득 찬, 신록(新綠) 같기도 하고 봄의 새 풀 같기도 한 소녀는 나의 어린 날 고향 풍경 같기도 해서 더욱 애뜻한 것일까.

직장이 먼 거리로 이사했을 때는 자연 버스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나날이 달라지는 가로수 이파리와 이르는 데마다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그 변화를 바라보는 재미도 이제는 피로해서 아예 눈을 감아버

리고 싶어진다. 눈을 감으면 고요가 오고, 고요 속에서 생각이 솟아나는데 그 생각들은 작품의 잔상이기도 하고 어린 날의 산천이 되기도 한다. 이는 참으로 유쾌한 사건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로 만드는 요술인데 지나간 날들이 현재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절감한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의 어린 날은 참말 아름다운 세월이었다. 마루에 앉으면 탁 트인 별판과 물고기가 노는 앞개울과 마냥 흘러만 가는 저편 강물 위로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곁에서 통학·통근하기를 십팔 년, 그 정겨운 판도여. 거기서 생긴 모든 일

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결정적 동력이 됨을 실감한다.

산길을 가다 뉘그러도 캐어 먹고, 보리밭 독에 앉아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기도 했으며, 아침 논두렁길은 개구리 밟을까 조심스러웠다.

한데 그 십 리 길은 지금 내가 서울 거리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보내는 한 시간 길과 맞먹는다. 종로 길 청계천 길을 지나면서 나는 문득문득 고향 생각을 한다. 두 개의 이질적 상황이 번갈아 머릿속을 내왕한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변화이면서 엄연히 하나 되어 나의 현실을 이룬다. 힘겨울 때일수록 고향은 내 어깨를 든든히 받쳐준다.

문명이 발달된다고 해서 사람이 잘 살아지는 건 아니다. 자연에서 한 발만 이탈해도 그만큼 병드는 건데 차라리 원시의 건강성이 부러워질 때가

많다. 죽음으로 가는 길은 편리하지만 삶으로 가는 길은 무진 힘들다. 부여된 여건 속에서 삶을 생명으로 영위하자면 죽음의 요인을 애써 지워 나가야 하며, 그 지우는 힘은 희생을 치르는 데서만 오기에, 예술작품이란 자기를 열심히 살리고자 싸우는 고통의 소산인가도 싶다.

창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공사인가. 삶과 죽음이 맞붙는 그 치열한 씨름판에서 나는 나를 유지하는 것만도 벅하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 나를 잘 살리고자 하는 욕망을 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목이 마를 때 어린 날의 뒷산 물을 퍼다 마시고 힘겨워 지칠 때 고향의 별판에 눕는다. 산은 오늘도 말없이 거기에 있고 물은 오늘도 주야(晝夜)를 흐르는데, 그들은 내 친구요 어머니다. 나는 그들의 언어를 열심히 믿는다.

소녀상을 만든다. 해도 해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또다시 소녀상을 만든다. 티 없이 맑고 꿈으로 가득 찬 고향산천 같은 형태를 이루어 보고자, 언어를 넘어서 오직 실현하는 것, 불순한 것을 과감히 물리치고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것. 눈을 닦고 다시 마음을 닦는다.

자연은 나의 순진함만큼만 일러주는데 생명의 오묘함을 찾아 오늘은

조금 서둘러 볼까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노라면 어디엔가 소녀들만의 조용한 공간이 펼쳐지리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언덕에서 고향 그리워 나는 오늘도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은 소녀상을 만든다.

**최종태** • 1932년 대전에서 4남 1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 대전사범학교 2학년 때부터 이동훈 선생에게 그림지도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들어가 김종영 선생과 장욱진 선생을 만났다. 1958년 조소과를 졸업하고 1959년부터 국전에 출품하여 문교부장관상과 추천작가상을 받았다. 그림과 조각 못지않게 글쓰기를 좋아하여 '나의 미술 아름다움을 향한 사색' 등 7권의 수상집과 '교회조각' 등 8권의 화집을 냈다. 여러 잡지에 글을 쓰고 여러 성당에 성상을 만들어 앉혔으며, 호암미술관·대전시립미술관·가나아트 등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한국가톨릭미술상·서울시문화상·대한민국예술원상을 받았고,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김종영미술관장·서울대 명예교수·대한민국예술원회원이자.

## 성북동 길상사 터의 역사 ③

글 • 홍정근

### 정법사의 역사를 따라서

길상사에서 옛돌 박물관으로 가는 언덕길을 조금 오르다 보면 성북동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찰인 정법사(正法寺)가 있다.

길상사 보다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정법사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길상사 터의 과거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삼각산 정법사는 18세기에 창건된 고찰이다. 조선후기 유명한 학승이며, 선사이신 호암 체정(虎巖體淨 1687~1784, 불조 법맥 제68조 조사) 대선사가 창건하였는데, 창건 당시에는 복천암(福泉庵)으로 삼각산 산세를 빌어 국운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 원찰(願刹)이었다.

원찰(願刹)이란 시주자의 소원을 빌거나 죽은 사람의 화상(畫像)이나 위패(位牌)를 모셔 놓고 명복을 비는 법당 또는 사찰을 뜻한다.

복천암을 창건한 호암 체정 대선사는 1701년(숙종 27) 15살의 나이에 출가하여 서산휴정(西山休靜)에서 편양언기(鞭羊彦機), 환성지안(喚醒志安)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이어 받아 조선후기 대표적인 학승으로 손꼽힌다. 스님은 주로 합천 해인사와 양산 통도사에 주로 주석했는데, 당시 강설을 듣고 따르는 학인들이 수 백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리고 스님에게는 신이한 행적들이 많았는데, 불타고 있는 집안에서 피하거나 꿈쩍하지 않았는



데도 다친 곳이나 상한 곳이 없었는가 하면, 또 큰 강을 건널 때에도 물에 빠져죽지 않고 살아났으며 그밖에도 산길에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바위 사이로 몸을 피하여 살아난 일도 있는 등 스님에게는 늘 신이한 일이 뒤따랐다고 한다. 스님은 만년(晩年)에 이르러 대중의 번거로움을 떠나서 오로지 선정에만 몰두하여 관심(觀心)만을 닦았으며 금강산 표훈사의 내원통암(內圓通庵)에서 입적하였다. 호암 체정 대선사의 진영은 순천 선암사, 범어사, 통도사에 모셔져 있는데, 그 만큼 조선후기 호남과 영남에서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원찰에 대해 짧게 알아보아야 한다. 원찰은 주로 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왕족들이 건립하였는데, 신라시대의 원찰은 신라 제일의 사찰 황룡사와 신라 문무왕을 위해 건립한 감은사, 무열왕의 명복을 위한 봉덕사 등이 있고, 고려시대

의 원찰은 조선시대와 달리 왕릉 근처에 가까이 절을 두지 않은 특징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건국이념에 따라 승유억불정책을 펼쳤지만, 왕가를 중심으로 불교는 남아있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1396년 왕비 신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경복궁과 가까운 곳에 정릉(貞陵)을 만들고, 주변에 극락왕생을 빌고자 조선시대 최초 원찰 흥천사를 건립하였다. 이후 무학 대사가 창건한 봉국사(奉國寺)와 삼각산의 정기를 받아 정릉천이 흘러내리는 맑은 골에 자리 잡은 경국사도 1669년(현종 10)에 원찰로 지정된다.

조선후기에 이르면서 왕실의 손이 매우 귀해지는데, 선조(조선 14대 왕)부터 순종(조선 27대 왕)까지 14명의 왕들 가운데 왕비의 소생은 효종, 현종, 숙종, 헌종, 순종 등 5명에 불과했다. 후궁의 소생 또한 매우 적고 대부분 요절해서, 2명 이상의 왕자가 살아남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헌종이 왕

자가 없이 죽자, 순원왕후의 명으로 강화도에서 농사짓고 살던 영조의 유일한 혈손인 전계군의 아들 이원범을 데려와 왕으로 삼은 철종, 왕실과 촌수가 수십촌 떨어진 왕친을 양자로 삼아 왕으로 만든 고종이 있었다.

조선전기까지만 해도 왕의 후궁들은 대부분 명문집안의 여식들 중에 간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친정집안의 품격이 후궁의 지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면서 왕자를 낳은 궁녀가 가장 높은 첩지를 받았다. 출신이 무수리든, 나인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왕자를 배출하기만 하면 그는 단번에 내명부의 정1품 빈(嬪)의 품계를 받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남아선호(男兒選好) 현상은 왕실불교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조선후기 들어 왕실원당에서 발견되는 커다란 변화상 중 하나는 왕자 탄생

을 발원하기 위한 원당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조선전기까지만 해도 왕실에서 원당을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은 부모나 남편, 요절한 자식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중기를 지나면서 아들 낳기를 발원하는 왕비나 후궁들의 기도처가 훨씬 더 많이 설치되었다. 이는 조선전기 구도적(求道的) 성향의 왕실불교가 후기에 이르러 기복적(祈福的)으로 변화되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그런데 왕비가 버젓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후궁이 왕자탄생 발원 기도처를 설치하는 것은 조선전기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할 행위였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러 왕실의 손이 워낙 귀해지다 보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왕비는 왕비대로, 후궁은 후궁대로 왕자 발원 기도처를 곳곳에 설치했다. 또한 왕자를 배출하지 못한 왕비의 발원권은 매우 미약했기 때문에, 왕자탄생 기도처에 대한 보상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불교신문2946호/2013년 9월18일자 참조)

성북구 지역은 예전부터 북한산의 남쪽 기슭으로 호랑이가 나올 정도로 산림이 우거진 곳이어서 조선의 국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호랑이 사냥을 나갈 정도였다. 모래땅이 많아 논농사를 짓기도 어려워 영조 41년(1765) 전까지는 사람이 살지도 않았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성북의 산골과 계곡은 도성에서 제일 가까운 사냥터이자 쉼터였다. 또한, 경복궁과 멀지 않은 사대문 가운데 혜화문과 숙정문을 넘으면 정릉과 왕실 원찰인 흥천사, 봉국사, 경국사, 화계사로 가는 길목이기도 했다.

왕실의 손이 끊어지는 조선 후기에 체정 호암 대사가 북악산 숙정문 넘어 삼각산 구진봉(舊陳奉) 중턱에 북천암이라는 암자를 창건하여 주석하니, 왕자 낳기를 바라는 왕비나 후궁들이 남몰래 찾아와 국운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원찰(願刹)이 되었던 것이다.

구진봉(舊陳奉) 아래 깊숙한 골 안에는 삼각산 맑은 정기가 담긴 약숫물이 나오는 곳이 세 곳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를 '삼형제 약수'라 불렀으며 길상사 터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북천암 부처님께 왕자 낳기를 기원하는 후궁과 상궁들이 삼형제 약숫물을 떠서 기도를 올렸다는 자료는 불교신문과 성북지역 사료(史料)에서 확인할 수 있다.(현재 길상사 암반 지하수는 도시화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었지만, 보존량은 매우 많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북천암을 찾아온 후궁과 상궁의 하녀나 군사들이 구진봉 중턱에 있는 북천암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넓고 평평한 대지와 계곡물이 흐르는 숲속 그늘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것이라 상상해볼 수 있다.

북천암은 체정 호암 대사가 입적하고, 조선이 무너지고 쇠퇴해지면서 칠성각 한 채와 주춧돌만 남아 있었는데, 1960년 만일염불회 계보를 잇는 한국불교의 마지막 어산장 지봉당 석산(智峯堂 石山 1919-2015) 대종사가 은사인 보광 대선사를 모시고 종로구 가회동(북촌)에서 건봉사(乾鳳寺) 포교당으로 운영하던 정법원을 이곳으로 옮겨와 절 이름을 삼각산 정법사(三角山 正法寺)라 짓고, 끊어진 북천암의 뒤를 잇고 있다. 경내에는 조선 후기에 조성되었다는 관음보살상과 산신탱화와 옛 북천암의 주춧돌이 여럿 전하고 있다.

### 동농 김가진의 자취를 찾아서

성북동은 도성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계곡이 깊고 산수가 아름다워 옛날부터 선비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다. 그들은 수려한 이 계곡에서 휴식을 취하고 몸과 마음을 수양했다.

1780년 이후부터 '북둔도화의 절경

을 품고 있는 성북동천 여기저기에 도성 양반들의 별장이 하나둘 조성되면서 19세기 말까지 꾸준히 늘어나는데, 그 중 성락원(城樂園)은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으로 지어졌으나, 1910년대 중반 고종의 아들 의친왕 이강이 35년간 별장으로 살았다고 한다. 성락원 경내에는 두개의 물줄기가 합쳐지는 곳에 위치한다고 해서 '쌍류동천(雙流東天)'이라 새겨진 암반이 있다.

동천(東天)이란 '신선이 사는 곳'을 뜻하는 어휘로 심산유곡의 경치 좋은 곳을 말한다. 동천(東天)의 유래는 신라시대 불교가 융성할 당시 스님들의 명산 고찰을 자리 잡을 때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고 운치어린 계곡을 찾게 된 것인데, 경남 양산 통도사 자장암의 자장동천(서기 646년)이 최초로 전해져온다. 그 이후 조선 문필가들이나 유배된 정치가들이 동천을 찾고 새로운 동천을 만들기도 했

다. 서울 북한산 주변일대 경관을 육동천 삼동문(六洞天 三洞門)이라 하였는데, 삼동문은 중흥동문(重興洞門), 삼청동문(三清洞門), 그리고 도봉동문(道峰洞門)을 말하며, 육동천에는 자하동천(紫霞洞天), 벽운동천(碧雲洞天), 백석동천(白石洞天), 도화동천(桃花洞天), 청린동천(靑麟洞天), 복호동천(伏虎洞天)이 있다. 서울의 도시화로 도화동천, 청린동천 등 여러 동천은 옛 모습을 알 수 없게 되었지만, 쌍류동천은 성락원이 보존되면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서울 청운동 자하문터널 윗길로 올라가면 터널 위로 인적이 드문 너른 터가 나오고 그 북쪽 끄트머리 쪽에 굽고 깊은 글씨로 ‘백운동천(白雲洞天)’이라고 선명하게 써져 있는데 동농 김가진(東農 金嘉鎭, 1846~1922)이 쓴 글임을 알 수 있다. 지금은 ‘백운동천’ 바위 글씨와 김가진의 저택인 백운장(白雲莊) 터 흔적만 남아 있다.

김가진은 대한제국의 외무대신 법무대신을 역임했으며 1910년 이후 백운장(白雲莊)에 칩거(蟄居)해 있다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정부 고문으로 활약한 독립 운동가이다. 한시에 조예가 깊어 시문을 즐겼던 김가진은 글씨도 잘 썼다. 폭넓은 교우관계를 바탕으로 젊은 시절부터 많은 이들에게 글씨를 써주었고, 전국의 사찰, 누정에도 현판 글씨를 많이 남겨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특히 창덕궁 비원장을 지내는 동안 비원 내의 정자와 문루 등에 많은 현판과 주련 글씨를 직접 써서 달았으며, 현재에도 대부분 남아 있다.

동농 김가진의 자취를 길상사에서 도 찾을 수 있다.

길상화보살 공덕비 아래로 흐르는 작은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물가의 모래에 잠겨 있는 넓직한 암반에 날렵하면서도 굽고 깊은 글씨로 ‘아천석(我泉石)’이라는 글씨와 왼쪽에는 ‘광무4년경자계추동농(光武四年庚子

季秋東農)’이라고 새겨져 있다. 광무는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연호로 광무 4년(경자년)이면 1900년이 된다. 아천석이란 이름은 ‘한카히 내 자연(개천과 돌)을 즐기다라는 뜻을 지닌 주자의 <거연아천석(居然我泉石)’이라는 시구에서 따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덕유산 자락 화림동 계곡에는 ‘거연정(居然亭)’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오래전 ‘아천석’ 암반 위(현재 숲속 아래)의 명상 수행터에 정자가 있었을 법한데, 만약 있었다면 ‘거연정’이라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본다.



동농 김가진의 글씨가 새겨져 있는 ‘아천석’ 비위

2008년 길상사 설법전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있던 정랑(靜

廊)을 현재 위치로 옮겨 새롭게 조성하는 과정에서 암반에 음각으로 ‘구계동천(?溪東天)’이라 새겨진 암반이 발견되었으나, 지금은 정랑 건물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정확한 한자와 돌 새김 연대, 새긴 이를 알 수 없어 매우 아쉽기만 하다.

필자의 불명확한 추측으로 길상사 터 아래에 의친왕이 거주했던 성락원 ‘쌍류동천’ 암반이 있고, ‘백운동천’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 의친왕과 사돈관계로 임시정부에서 생을 마감할 때 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동농 김가진과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그리고 길상사 계곡 암반에 새겨진 동농 김가진의 ‘아천석’ 글씨는 어떠한 인연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길상사 경내에서 우직하게 300여년의 역사를 지켜봐온 느티나무님(보호수)에게 말을 건네어 그 답을 들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다음호 계속)

## 6월 결연 대상자 - 한미영(가명)

### 지옥 같은 결혼생활

한미영 님(가명)은 필리핀 출신으로 1999년에 필리핀에서 한국남성과 만나 국제결혼을 하고, 1년 뒤 남편을 따라 낯선 한국 땅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한국생활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낮에는 시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해야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고된 노동일에 몸도 힘들었지만 실수를 할 때마다 이어지는 가족의 폭언과 폭행으로 몸도 마음도 멍들어 갔습니다.

남편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지만 가족들의 폭언과 폭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셋째를 갖게 되었

고 잘못하면 뱃속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다행히 여성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전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으나 아이 둘은 남편에게 보내야 했고 복중의 태아만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미영 님은 식당과 공장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 하였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와 만나 네 명의 아이를 더 낳았지만 남편이 불법체류로 인해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추방당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홀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 홀로 아이 5명을 돌보는 엄마

현재 한미영 님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수급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5명을 키우기에는 수급비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수급비의 대부분을 아이들의 양육비, 주거비로 사용하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생계비 부족으로 4월 달에는 전기세와 도시가스비를 미납한 상태이고 생계비가 부족할 때 마다 지인에게 조금씩 빌린 돈이 쌓여 약 100만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생후 8개월 된 막내는 먹은 분유를 계속 게워내서인지 몸무게가 6.4kg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 8.7kg에서 크게 벗어나 있

는 상태입니다. 한미영 님 또한 속 쓰림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위궤양 진단을 받았으며 간내 담석이 발견되어 추가 진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산 후 몸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5명의 아이들을 보살피느라 매우 지쳐 있습니다. 고향인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가족 모두 생활이 어려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현재 한미영 님의 가정에서 가장 큰 지출은 막내의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비용입니다. 분유와 기저귀 값만 해도 한 달에 2~30만원이 지출되고 있어서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영 님의 품속에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월 30만 원씩 1년간 사용할 36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톡 같이가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권

글 • 고현희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통계가 있지만, 아래 통계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는 군인과 민간인 합쳐서 약6800만 명이고, 이중 반 이상이 민간인 사망자였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인간의 죽음을 겪고 살아남은 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유엔에 세계의 56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기초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것이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48개국 투표참여, 8개국 기권, 투표참여국 전체 찬성으로 1948년 12월

10일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12월 10일은 세계인권 날로 2018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발표 60주년이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으로서 성취해야 할 인권의 공동 기준입니다. 이는 단지 선언에 불과할 뿐 조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인권-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여러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유엔은 1946년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권장하였습니다. 1993년 유엔 총회에서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채택하면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 기준준칙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인권기구 설립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1998년 정부가 인권기구 설립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하면서 인권기구 설립이 추진되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인권전담 국가기관입니다. 그 설립목적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10조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0조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목적이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 10조의 ‘국가가 인권을 확인, 보장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감시·독려하는 독립기구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의 첫 단어, 주어는 ‘모든 국민’입니다. 이 주어는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에는 ‘인간’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변화해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모든 국민’에 속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다면 어린이든, 어른이든, 어떤 직업이든, 어떤 상태이든... 존엄하고,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 국가가 이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의무인 것입니다.

2017년 10월에 지하철 장애인용 리프트를 사용하려던 휠체어 장애인이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1999년 이

## 사람도 침팬지도 모두 자연이네

글 • 곽영미

후 장애인용 리프트에서 13건의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5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8년 5월 23일 오전 8시, 광화문역에서 휠체어리프트 점거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2017년 10월의 사고 후 7개월이 지났어도 서울교통공사 측은 유가족에게 한 번의 사과도 없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추후에 쟁점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은,  
‘서울시는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시위했고,

출근 길 시민은,  
‘여기 단체 고발할 거야.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가 문제야? 다들 아침에 늦고 있는 게 문제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시위하는 장애인들은,  
‘휠체어 탄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켜고 있는 ‘불

편한’ 경험을 우리 장애인들은 매일 겪고 있습니다.’라고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서야, 간신히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침팬지가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이용해 나무 틈 속에 있는 개미를 잡아먹고, 사람처럼 포옹하거나 고아가 된 새끼를 입양해 키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침팬지가 사람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이 놀라운 침팬지의 행동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 바로 제인 구달입니다. 침팬지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제인 구달은 아프리카에 들어가 50년 가까이 침팬지와 함께 지냈어요. 그래서 침팬지에 대해 사람들이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지금도 제인 구달은 침팬지가 얼마나 멋진 동물이며,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사람들

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이 제인 구달의 이야기를 들으러 강당에 모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 침팬지가 멸종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인 구달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불행이도 아프리카 밀렵에 사는 침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만 마리가 넘던 아프리카의 침팬지가 지금은 30만 마리도 남지 않았지요. 30년 뒤에는 야생 침팬지가 전부 멸종될지도 몰라요.”

제인 구달의 말에 아이들이 안타까

음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모두 멸종된다고요?”

“말도 안돼요.”

“어른이 돼서도 침팬지를 보고 싶어요.”

아이들은 침팬지의 귀여운 모습을 오랫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자기들처럼 화가 나면 토라지기도 하고, 껴안고 장난치는 모습이 눈앞에 생생했지요.

“선생님, 그런데 왜 침팬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 아이가 슬픈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밀림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재회사들이 밀림에서 쉴 새 없이 나무를 베고 있어요. 사냥꾼들은 침팬지를 마구잡이로 잡고 있고요.”

제인 구달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나무를 베고 어린 침팬지들까지 잡아가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라져가는 동물은 침팬지뿐만이

아니에요. 매일 30~300종의 생물종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없어진 생물종은 다시는 우리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영영 이별이라고요!

물론 멸종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 시간 빙하기와 자연환경의 변화로 공룡 같은 동물들이 멸종된 것처럼, 인류의 역사도 멸종이 반복된답니다.

하지만 지금의 멸종은 옛날의 멸종과는 조금 다르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자연을 함부로 대해서 멸종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지금도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을 없애려고 총과 칼을 들고 있는 셈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는 필요 없는 종(種, 생물 분류의 기초 단위)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종 하나 없어지는 게 뭐 대수냐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필요 없

는 종은 하나도 없답니다.

사람도 생태계의 한 부분에 속하는 종이랍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종은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으며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어느 한 종이 사라지면 다른 종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답니다.

멸종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침팬지와 다른 동물들을 돕기 위해 강연을 하고 기금을 모으면서 지냅니다.”

제인 구달은 1991년부터 ‘뿌리와 새싹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100여 개국 수천 명의 뿌리와 새싹 회원들이 이웃과 동물,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식물을 멸종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들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된답니다.”

‘뿌리와 새싹 운동’은 연약한 새싹이 벽돌을 뚫고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관심 있는 동물과 식물 중 하나를 정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인 구달의 말을 들어볼까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일과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임을 일본 일초도 잊지 마세요.”

제인 구달은 오늘날 많은 종이 멸종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인 구달의 말처럼 우리는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 부부 사이의 위기극복

한 남자가 부부 문제 때문에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성실하고 좋은 남편이라 생각했던지라 남자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합니다.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내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인에게 건강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남자는 상담사의 말이 끝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영문을 모르겠어요.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도 잘 벌어서 주고, 집안일도 잘 해주는 편인데 도대체 왜 이럴까요?”

“혹시 부인이 최근 우울해한다던가..”

“내가 술주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외박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모르겠네요.”

“부인의 친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겼지는 않았나요?”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걸까



요? 흥신소를 알아봐야 할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알아봐야 할까요?”

더는 참지 못한 상담사가 책상을 쿵 내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집으로 가서서 부인이 하는 말을 듣기만 하세요. 절대로 먼저 말을 꺼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도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상담소를 찾아와 주세요.”

상담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기가 죽은 남자는 반신반의하며 상담사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부부 문제로 상담실을 찾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상대를 이기는 최고의 토론 방법은 경청(傾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보다 상대의 의견을 잘 듣고 이해해야 오히려 상대방을 더 잘 설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는 행동이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그저 일방적인 강요일 뿐입니다. 선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해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단순히 부담을 주는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전하고 싶은 상대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알아주세요.



## 반하다

글 • 김잠복

이태 째 손주들한테 반해서 어쩔 줄 모르며 살고 있다. 내 혈육이니 당연히 사랑스럽지만, 반한다는 건 또 다른 느낌이다.

어떤 대상에 정신을 빼앗겨버리는 걸 반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 무엇에 반할 때가 살맛난다. 반할만 한 것이 없는 세상은 밋밋해서 시장기 같은 공허함이 찾아든다. 그럴 때는 수필집을 펼쳐 명문장을 발견하고 스윽 밑줄을 그어가며 지그시 눈을 감아 반하는 방법이다.

요즘같이 아이가 귀한 시대에 손주를 셋씩이나 둔 건 복된 일이다. 손주 사랑에 젖어 지내는 나를 두고 주변에서는 굳이 힘든 일을 자칭하느냐는 식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

다. 그 덕에 매일 동화 속을 사는 즐거움을 누린다. 친 손주 현서, 윤서, 진서는 서로 번갈아 가며 온갖 말과 재롱으로 나를 살맛나게 한다.

여섯 살 난 현서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할머니 바람이 그네를 밀어주네?’, 하늘에는 동물구름이 참 많아, 해님은 부끄러워서 구름 뒤로 숨었나보네?’라는 말을 해서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 그 때는 ‘요거, 요거 이쁜 거’라는 표현의 말로 머리와 등을 번갈아 쓰다듬으며 곱다시 반한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떤 식으로 답을 해줄까 고민을 한다. 예사롭지 않은 감성을 타고 난 현서는 보통아이한테는 보기 드

문 끼가 있다.

둘째 윤서는 성격이 당차고 영특하다. 가무잡잡한 피부색에다 눈망울이 머루알처럼 맑고 새까만 인상이 결코 만만찮다. 엘리베이터 안이나 놀이터에서 또래아이를 만날라치면 손가락을 바짝 세워 ‘나 네 살이야!’라며 먼저 말을 건넨다. 눈은 마치 기선제압을 하듯 동그랗게 올리고 살짝 윈크까지 더할 때면 훌쩍 반한다. 화장실변기에 앉아 용변을 본 뒤 ‘후루루’ 뒤통을 내리다가 ‘변기야 더러운 것만 쥐서 미안해!’라고 말할 때는 ‘아!’하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막내 진서는 똥보 할머니를 제대로 운동시킨다. 사내아이라 그런지 온 집안을 놀이터로 만들어 놓고 잠시도 손과 발을 쉬지 않는다. 식탁 밑에, 거실 장위에, 화장대 의자를 닦치는 대로 닫고 올라서려 용을 쓰는 바람에 눈을 떼지 못한다. 사방

천지가 궁금해서 설치니 사고의 여지는 곳곳에 숨었다. 장난감은 주로 바퀴가 달리고 스위치를 켜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 사이렌 소리가 나는 119소방차, 거동이 ‘우렁우렁’ 무섭증이 나는 공룡의 행보는 내 눈에도 간장이 서늘한데 겁 없이 다룬다. 이런 것들은 다 건전지 힘으로 움직여서 사흘거리로 마트에서 새것을 사 나르는 불편함이 따른다. 누나들에 비하면 온몸을 쓰는 손주가 힘에 부치긴 해도 할머니 눈에는 마냥 꽃이고 잎이다.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는 일층이다. 그래서 거실 창을 통해 사계절 화단이 펼치는 변화무상한 풍경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본다. 흙을 좋아해서 애초부터 높은 집은 관심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유 중에는 손주가 셋이니 ‘층간소음’ 문제를 염두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땅을 가까이 하고픈 마음은 선택의 여지가 없

었다. 집 앞 화단을 내 개인소유인 양 가꾸고 바라보는 즐거움은 덤으로 얻는다.

애초부터 화단은 철쭉이 군데군데 군락을 이루고 수수꽃다리며 키다리 단풍나무, 생강나무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어우러져 이웃을 이루었다. 가장자리로 주목과 배롱나무가 묵묵히 주변을 다스리듯 서 있는 것이 그런대로 볼만했다. 이듬해 봄 날이 찾아들자 화단은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보이다가 어느 날은 불시에 빨강고 노란 철쭉과 생강나무꽃이 내기하듯 단체로 팡팡 앞 다투어 꽃망울을 틔웠다. 농도를 더해 번지는 꽃 빛에 반한 나는 ‘저런, 저런, 저 고운 빛’을 연발해가며 꽃 엄살을 떠는 수다쟁이가 된다. 도심을 배회하다 지친 까치나 박새, 비둘기며 이름 모를 새들이 날아와 잠시 숨을 고르는 화단은 날마다 반할 거리를 선물한다.

작년 겨울에는 아파트 청소를 도맡아하는 아주머니한테 반했다. 입주민 대부분이 젊은 층이 많아선지 놀이터는 늘 아이들로 넘쳐난다. 오르내리는 계단과 놀이터는 조무래기들이 흘린 자잘한 쓰레기로 청소거리가 여간 아니다. 놀이터는 놀이터대로 치다꺼리할 일이 많고 공동출입구 유리창이며 엘리베이터를 날마다 걸레질하는 아주머니는 늘 부지런을 떨어야했다. 바쁜 일손은 엄동설한이라고 줄어들지 않았다. 저러다 단 며칠만이라도 아주머니에게 청소를 못 할 사정이 생긴다면 어찌 될까 싶었다.

하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었다.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영락없이 나타난 아주머니의 손길은 한결같았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쓸고 닦는 일을 내 것처럼 했으니 건물 안팎이 반짝거렸다. 마법의 손길이 지나간 자리마다 맑은 향내가 머물렀다. 자신이 하는 일에 성의를 다해 신

뢰감을 주는 아주머니는 존경심을 넘어 은근히 반하게 만들었다. 간혹 지나치다 마주칠 때는 고마움의 인사말을 건넸는데 그때마다 미소를 머금은 채 ‘건강하고 일할 수 있으니 다행이지요.’란 말씀이었다. 이는 인생 선배로부터 듣는 교훈이었다.

요즘 같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세상이 시끄럽고 어려운 때일수록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한다는 것은 진정한 애국이다. 시민과 개인 간에 서로 힘이 되고 신뢰감을 보여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라 사랑이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사람이건 사물이건, 그 무엇으로 인해 반할 때가 적잖았다. 내가 반한 것들은 다 보석처럼, 꽃처럼 예쁘고 사랑스럽

고 대견스러웠다. 그래서 세상은 살만하고 존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간직할 수가 있었다.

누가, 무엇에 반할 수 있다는 건 행복한 거다. 말이 나온 김에 요즘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반할만한 일꾼이 되어 보라는 거다. 본인인 맡은 일에 창의성을 발휘함으로써, 온 힘으로 열중하고 도전함으로써, 또는 단정한 몸가짐과 상냥한 말씨를 습관화함으로써 주변을 반하게 만들 수 있을 때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명심할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든, 무엇으로든, 상대적으로 반하게 할 만한 여지는 내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

**김집복** · 경주 외동에서 태어나 경주여고를 졸업했다. 2010년 「한국수필」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고 문단에 나왔다. 수필집으로는 「빈들에 서다,」 「가족이 있는 풍경,이 있다. 2013년부터 울산신문 「금요산책」을 3년간 연재했으며, 울산문인협회 회원, 수필사랑문학회 회원, 공단문학회 회장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 캐나다에서 살아보기

글 • 강인철

오늘은 일요일 성당 가는 날이다. 서울처럼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게 아니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조금 불편하기는 하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우리교민들만의 우리말 천국이라 속이 뽕 뚫리는 듯 시원하다. 성서는 물론 강론과 성가와 기도가 모두 서울에서와 똑같은데다 친교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애프터 타임은 또 다른 색다른이다.

자리를 옮겨 자유롭게 둘러앉은 원탁은 약속이나 한 듯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주부와 청장노년층은 또 그들 나름의 세대별 그룹이 되어 절로 공감대를 이루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미리 준비된 음료와 김밥 떡 과일 등을 서로 나누며 오순도순 어

울리는 모습이 마치 가족처럼 친근해 보여 좋다. 변호사, 그로서리 정원사, 스시맨, 회계사, 기사, 여행사, 리얼터 등 저마다의 사는 이야기와 살아갈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마치 교민사회의 정보교환센터라도 된 듯 모두가 진지하고 적극적인 표정들이 놀랍기만 하다. 화제가 고국 소식으로 바뀌며 시선이 내게로 쏠리면 잠시나마 TV시사토크쇼에 나선 게스트라도 된 기분이다.

언제 왔느냐, 서울서 뭐했느냐, 애들은 몇이냐, 왜 왔느냐, 무얼 하고 지내느냐, 영주권은? 등 한국인의 낯선 자에 대한 호기조사(?) 본능은 오나가나 말할 수 없는 통과외 레인가 보다. 재미있는 건 역시 가

십성 예체능 계 소식이고 힘든 건 잘 알지 못하는 서울아파트값 시세이며 가장 조심스러운 건 남북문제와 정치성 뉴스다. 한 치 속내를 알 수 없는 이데올로기의 심각성이 상상을 뛰어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귀가 길에 둘러보는 인근의 내셔널 파크 오픈마켓은 마치 피크닉을 즐기는 기분까지 들어 좋다. 우리의 재래시장은 고정된 상점에서 지정 품목을 파는 상설점포지만 이곳은 상점을 소유하지 않고 허가된 공유지에서 매주 일요일 순번대로 자리를 바꿔가며 장사를 하고 있다. 2백여 개의 임시부스 가운데 절반이 식료품인데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마카로니, 스피니치, 토마토, 캐비지, 과일 등 농산물이 대부분이지만 수제 소시지나 치즈, 햄, 빵, 시럽, 잼도 인기가 썰러리, 상추, 케일, 로메인 등 쌈 채소도 제법 풍성하기는 하나 서양사람 닮았는지 크기가 너

무 큰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다.

뿐만 아니라 모자나 신발, 액세서리, 장난감도 있고 각종 꽃들이 이들의 일상생활을 말해주 듯 다양한 가운데 가끔은 낯설고 신기한 원주민들의 인디오 민예품도 볼 수 있어 눈을 즐겁게 한다. 역시 즉석 푸드 트럭의 인기는 여기서도 어른 아이가 없다. 햄버거, 타코벨, 케밥, 핫도그, 아이스크림 그리고 그 옆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회오리감자와 봉어빵 코너! 아~대한민국도 거기 있었다. 우리교민들이야 말할 것도 없거니와 파란 눈과 곱슬머리의 남녀 노소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왜 갑자기 코허리가 시큰했을까. 바삭 하고 달콤했던 봉어빵 한 입의 맛이라니... 환한 웃음이 행복해 보였던 Kim아저씨와 Pusan아지매에게 힘내시라며 엄지 척으로 답해 주었다.

대개의 마켓 쇼핑은 시간을 절약하기 마련이지만 이처럼 공원에 차



러진 노천 장터는 딱히 사야 할 물건이 없음에도 소풍 나온 기분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처음 보는 묘(?)하고 이상(?)한 물건들에 대해 물어보는 재미도 제법 쏠쏠하다. 우리와 달리 흥정이 없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이지 뭐~”하셨던 생전의 할머니 말씀이 오늘따라 새삼스럽다.

낮선 곳에서는 장터만큼 자유로운 곳도 없다. 조금은 어설피고 어수선하지만 볼거리, 먹거리가 친근감을 더해주고 거기서 말씨, 맘씨, 풍습에서 그들 삶의 맛과 멋을 오감으로 느끼고 사람을 읽어볼 수 있어 좋다. 동남아의 수상 시장, 모스크바의 아르바트, 페루의 풍물코너, 마드리드의 가라지세일, 카이로의 벵룩시장, 카슈가르의 바자르 등 사람

가운데 시장이 있고 거기 원초적 삶의 원형들이 있었다.

세상은 넓고 길은 사람 따라 끝이 없으나 고만고만한 삶들이 거기서 거기인 양 옹기종기 모여 서로 주고 받고, 사고팔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다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면 색다른 언어와 문화의 충돌에 잠시 어리둥절해 지지만 그것은 신도불이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서로들 많이 닮고 있는 게 너무도 신기하고 흥미롭다.

백화점과는 다른 기분으로 장을 보는 재미가 마치 소풍을 나온 듯 즐겁고 흐뭇하다. 행복은 미래의 계획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지금 가질 수 있는 느낌이라 했던가?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 충만한 일요일의 행복! 이맘때 서울 우리 동네 금요일시장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겠지...?

**강인철** ·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 『에세이21』 가을호로 등단했고, 현재 문화유산국민신탁 홍보대사, 서울시교육청 재능기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5부자 라이브 인 USA> (이름이 뭐갈래) 등이 있다.

## 2019년 숲기행 맑고 향기로운 암자를 찾아서

2019년 숲기행은 2018년에 이어 '암자기행'을 테마로 지난해에 다녀보지 못한 암자를 둘러보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본래의 나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1. 숲기행 일정 : 매월 4째 주 토요일

일자	장소	숲 특성
6/22	대구 팔공산 선본사	약사여래부처님 기도처 선본사와 갯바위 부처님 그리고 관봉 주변의 암자들
<b>7월 휴가철과 더위로 휴식</b>		
8/24	강원도 설악산안양암	신흥사의 3암자 순례와 울산바위 가는 길의 뛰어난 자연경관
9/28	경북 운달산 김룡사	백두대간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운달산과 김룡사의 산배 3암자 순례
10/26	충북 속리산 법주사	속리산의 법주사, 세조가 병을 얻고 3일간 머물면서 병을 고친 복천암, 중사자암 그리고 속리산의 자연환경
10/11	강원도 오대산 동대관음암	월정사의 5대암자 중 중대, 동대, 남대, 3암자와 부도전 그리고 선재길

※ 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10월 11일은 봉사자 숲기행으로 (사)맑고 향기롭게 봉사자만 참여 가능

### 2. 접수 안내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 및 길상사 신도 :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 가능.  
(6월 3일, 8월 5일, 9월 2일, 10월 7일)

능. (6월 10일, 8월 12일, 9월 9일, 10월 14일)

### 3. 참가비

· 일반인 : 매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 가

· 회원 및 신도 : 30,000원 / 일반인 : 40,000원



- 입금처:  
KEB하나은행 257-890001-69804  
/ 예금주: 매품 향기롭게
- 참가비 환불 원칙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4. 할인 안내

- 전년도 3만 원 이상 후원 회원에 한하여 할인 가능하며 신규 회원은 후원금 납부하여 3개월 후 참여 가능
- 길상사 신도는 신도증 소지자로 한함
- 가족 참석은 직계 가족 1인으로 한함

#### 5. 탑승지

- 길상사 일주문: 오전 6시 10분 / 한성대역 5번출구: 오전 6시 20분 / 양재역 2번출구 오전 7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 6.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02-741-4696)

### 2019년 매품 향기롭게 강연회(일요특강)

(사)매품 향기롭게와 길상사에서는 법정 스님 입적 9주기해를 맞아 법정 스님의 영상 강연&법문으로 일요특강을 진행합니다.

시대적으로 진정한 어른과 진정한 가르침이 사라져가고, 경쟁과 외로움이 존재하는 현실점에 스님의 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마련하였으니, 많은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정 : 3월 ~ 11월, 4째 일요일  
(4째 일요일외에는 일요 가족법회가 병행됩니다.)
- 시간 : 오전 11시(사시예불 후)
- 장소 : 설법전

###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도 매품 향기롭게

불기 2563년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품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셨습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마음애향 자비를! 세상애향 평화를!"이란 봉축 표어 아래 행사가 진행되었고, 길상사에서는 오전 9시부터 관불의식을 시작으로 사시예불, 봉축법회가 병행되었습니다.

매품 향기롭게 중앙모임은 올해에도 많은 분들과 함께 뜻 깊은 부처님 오신날을 보내고자 설법전, 경내 마당과 진영각 아래 공터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녹색나눔장터, 불교문화 친환경 체험마당, 먹거리 장터를 비롯하여 이가온 화가의 '불이전'을 열고, 매품 향기롭게 홍보 부스와 법정 스님 사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매품 향기롭게는 '자비심이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씀하신 법정 스님의 말씀에 따라 후원금을 모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반찬 나눔, 생계비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기 후원 회원 가입을 해주시는 분들께 법정 스님의 저서인 '오두막 편지'를 선물하였습니다. 이는 매품 향기로운 활동에 뜻을 함께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법정 스님의 정신을 더욱 깊이 공유하기 위

함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축복하듯 오후에도 맑은 하늘이 이어졌고, 사회를 맡은 매품 향기롭게 흥정근 사무국장(상근이사)의 진행을 시작으로 마음과 세상에 자비와 평화를 기원하는 길상음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부는 길상사 합창단과 노래하는 박창근의 맑은 목소리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순서로 가수 박창근에게 매품 향기롭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어 길상사 주지 덕일 스님의 봉축 인사말씀과 함께 연등 점등식으로 마음애향 자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부는 인디언 전통민속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인디언의 삶과 전통을 알리기 위해 에콰도르의 Maldonado 4형제가 결성한 그룹인 인디언 쿠스코의 공연과 감미로운 면서도 애수가 깃든 목소리를 가진 포크계의 아이들 추가열이 음악회의 2부를 화려하게 빛내고 세상애향 평화를 기원해보았습니다. 이로써 부처님오신날 마음에는 자비심을 세상에는 평화를 발원하는 귀중한 음악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불기 2563년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에 와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에 자비심이 깃들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매품 향기롭게 중앙 사무국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애써주신 봉사자 분들께 다



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처님 오신 날의 추억을 간직하며 하루하루 늘 건강하시고, 날마다 기쁜 날이 되실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 매키투리 '무소유 필사모임'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5월 6일(화) 오전 10시 부터 매키투리 '무소유 필사모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만남으로 조금 서투르고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법정스님을 그리워하는 공통점이 있어 오리엔테이션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5~6월 필사할 책은 가벼운 마음으로 필사할 수 있는, 글이 간결한 잠언집, '산에는 꽃이 피네'와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로 선정하였습니다. 필사모임은 각 팀당 6명의 인원씩 2개 팀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모여 법정스님의 저서를 필사할 예정입니다.

필사모임은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토론과 참여로 운영하고자 하며 스님의 저서를 필사하는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일상 삶 속에서 실천행을 다하는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2019년 매키투리 대학생 사회활동

### 동 지원사업 '나누미' 팀을 모집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의 재능과 전공을 살려 마음, 세상, 자연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행의 실천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사회활동에 동참하는 대학생 자원봉사 문화 조성하고자 나누는 기쁨 사회활동팀을 4월 약 한 달간 모집했습니다.

올해에는 총 8개 팀이 지원하였고 이중 5개 팀을 선발하였습니다. 홀몸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경희대학교 [미라클], 저소득 가정 아동학생들에게 공부 외에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연합동아리[나누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개선과 결혼식을 치루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통혼례를 지원하는 대학교 연합동아리 [P.R.V.C], 체험 활동을 통해 고아원 아동(4~6세)들의 꿈을 키워주는 활동을 기획한 대학교 연합동아리 [4U], 마지막으로 빈곤층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국대학교 [세상밖으로아우팅]이 선정 되었습니다.

선정 후 함께 모여 (사)매키투리 와 나누는 기쁨 사업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사업 운영 취지와 각 동아리의 현황, 사업계획서의 세부 사

항을 조절하면서 상호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세상을 매키투리 같이 만드는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며 우리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계획대로 잘 운영 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 매키투리 활기찬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시민모임 '매키투리'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에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매키투리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공유해주실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 매키투리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 매키투리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매키투리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가정 490여 가구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밀반찬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

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15kg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경기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할수록 조그마한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3월부터 10월 까지 둘째 목요일에는 김치 나눔을 진행합니다. 중앙모임 봉사자를 비롯하여 KTX 나눔이회, SJ파워 사랑봉사단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고 있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함께 협력하면 훨씬 더 쉽고 맛있게 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 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내부 공사로 인해 운영 중단 중입니다. 당분간 봉사활동이 중지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매키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매키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6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4일(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일요토깵(법정 스님 영상법문) : 23일(일)/오전 11시/길상사 설법전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13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만발식당 내부 공사 관계로 잠정 중단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8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15, 22일)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숲기행 6월 22일(토) 대구 팔공산 선분사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매주 화요일/오후 12시/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짝수 달 매주 수요일/오후 1시 30분/세계일화실

####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맑고 향기롭게 모바일 앱(APP)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소식과 법정스님의 법문 영상, 잠안을 모바일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과 앱(AP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스마트폰) → 구글 play스토어 → 맑고 향기롭게 검색 → 다운로드 → 설치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의 많은 활용과 홍보(추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3층공간은 대관으로 공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자 원봉사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장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기정과 함께 명상 및 문화기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 태극권, 형익권, 팔괘장 정통계승 및 기공활법 활기공 전수자이며 현재 대체의학 테라피를 진행하고 있는 백무현 선생님을 모시고, 매주 월, 수, 목 오후 8시에 몸살림 기공체조 강좌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 법정 스님 책임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운영/오전9시30분~오후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신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의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향기로운 가계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환경 및 시설 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사업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 정기후원 / 편리한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정기 후원 회원 가입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접속 가입서 작성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방문 가입서 작성 <a href="http://www.clean94.or.kr">www.clean94.or.kr</a>
----------------	---

## 온라인 후원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사업 후원계좌 <b>국민 817-01-0253-129</b> <b>KEB하나 201-890400-87705</b> <b>농협 029-01-199412</b>
	결식이웃 후원계좌 <b>국민 817-01-0255-458</b>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b>신한 100-013-787953</b> 장학금 후원계좌 <b>KEB하나 220-890015-10204</b>
대구모임 (053-753-8883)	<b>대구 002-05-016277-8</b>
광주모임 (062-236-3129)	<b>농협 355-0018-7812-13</b>
경남모임 (055-266-0170)	<b>농협 932-01-002933</b>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사)맑고 향기롭게 지부 사무국으로 전화주셔서 회원등록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6월 1일(토) 오후 6시 ~ 8시 30분
- 장소: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초하루기도 및 범회

- 일시: 6월 3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송광사(불일암,감로암) 성지순례

- 일시: 6월 8일(토) 오전 7시
- 집결장소: 한성대입구역 부근
- 동참금: 1만원
- ※ 당일 회향 일정이며, 취소 시 환불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6월 8일(토) 오후 8시 ~ 6월 9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극락전

## 보름기도

- 일시: 6월 17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지장재일

- 일시: 6월 20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 관음재일

- 일시: 6월 26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 6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 기도	6월 1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초하루 기도	6월 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송광사 성지순례	6월 8일	오전 7시	송광사
삼천배 철야정진	6월 8일	오후 8시	극락전
보름기도	6월 1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6월 20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6월 2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금강경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 길상사 신행단체 회원 모집

불보살님들의 가피로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에서서는 각 신행 단체별로 보살행을 실천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나와 남을 이롭게하는 이타행을 실천하시는데 관심있으신 불자님들의 주저없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보현회 : 선열당 공양, 배식 지원
- 문수회 : 맑고 향기로운 가게 운영, 여자정량(화장실) 청소
- 합창단 : 길상사 법회, 행사 음성공양
- 천수회 : 템플스테이, 템플라이프, 여름 수련회 지원
- 지장회 : 49재, 기재 등 각종 재 도움
- 금강회 : 거사 모임, 사찰 내외 울력 지원
- 청년회 : 어린이 법회 지원, 사찰 내외 울력 지원
- 새신도 교육회 : 새신도 교육 안내
- 연등팀 : 연등만들기, 길상사 신도 소식지 발송
- 불기뒤키봉사모임 : 법당 불기(촛대, 향로, 다기)를 닦는 봉사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인연공덕 지으시고 성불하십시오.

\* 자원봉사 관련 문의 : 길상사 종무소 02)3672-5945



## 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활동’ 함께해요!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고령층 어르신과 장애인 등 480여 가구에 매주 반찬과 김치를 나누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모임이 1999년 IMF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톨이가 된 노인들과 장애인을 찾아 반찬과 김장을 담아 전해 드린 것이 시작이 되어 어느덧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맑고 향기롭게와 뜻을 함께 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다는 책임감으로 참여하는 봉사자가 계시기에 지금도 나눔사업을 지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맑고 향기롭게 봉사자도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힘든 봉사는 꺼려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드려야 할 대상자가 많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할 봉사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활동 내용**
  - 무의탁노인, 결식아동, 극빈 장애인 및 저소득 가구 지원
  - 일반찬 2가지 조리후 각 동사무소로 전달
  - 3월~10월 둘째 목요일에는 김치 전달
  - 설날, 추석, 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물품후원
  - 11월말 김장(각 가구에 15kg) 나눔

- **참여 안내**
  - 장소 : 길상사 주차장 입구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시간 : 매주 목,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오후 2시
  - 문의 : 맑고 향기롭게 중앙사무국 02.741-4696

